여왕이 돌아왔다

세계 최초로 피겨 여자 싱글 부문 200점을 돌파하며 세계선수권대회를 우승한 김연아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친구 만나며 쉬고 싶어요"

■김연아 귀국 인터뷰

-우승 소감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였다. 가장 잘하고 싶었고 선수 생활 가장 중요한 대회였는데 정상을 밟아 뜻깊다.

-취재진 많은데 어떤 느낌이 드나.

▲큰 대회였고 좋은 성적을 내 이번에 더 많은 분이 공항을 찾아주셨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꿈을 이루겠다.

-동계올림픽 준비 계획은.

▲이번 경기에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조금 실수도 있었고 스핀 등 경기 전에 점검 못 한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 그런 실수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 들었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이 내 실력 다 발휘해 실수 없이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것.

▲캐나다에서 계속 훈련해 친구나 아는 분들 얼굴도 못 보고 한국이 많이 그리웠다. 오게 돼 기쁘다. 시즌 끝나 마음 편하다. 친구도 만나고 많이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일정은.

▲운동만 했지 응원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축구 경기 응원을 한다. 한국에 한 달 정도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훈련도 하고 4월 말 아이스쇼 준비도 잘하겠다.

-챔피언 되는데 원동력은.

▲선수생활을 되돌아보면 주니어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됐다.

-피겨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예전보다 어린 나이에 피겨를 시작하는 선수가 많고 기량도 좋아졌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듯이 목표를 두고 포기하지 않고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선수들이 연습할 링크 장도 많아졌으면 한다.

-은퇴 뒤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아직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 /연합뉴스

신지애 "이번에는 꼭 우승"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사표

김인경·최나연도 선전 다짐

"5년 동안 기다려온 우승컵을 되찾겠다"

젊은 피의 수혈로 더욱 막강해진 한국골프자매들이 2009년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출사표를 던졌다.

2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6천569야드)에서 열리는 나비스코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은 한국 선수들의 우승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대회였다.

1972년 시작, 1983년부터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이 대회에서 박지은(30·나이키골프)만이 2004년 정상에 오르며 유일한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되기 전에 3승을 올린 신지애(21·미래에셋 사진)를 비롯해 신인 티를 벗고 한단계 올라선 지은희(23·휠라코리아), 김인경(21·하나금융), 최나연(22·SK텔레콤)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또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서희경(24·하이트)과 김하늘(21·코오롱)도 출전한다.

▲삼세번 신지애, 이번에는 꼭=신지애는 2008년 이 대회에서 공동 31위, 2007년에는 공동 15위에 올랐다. 세번째 이 대회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올 시즌 이미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첫 우승을 올렸고 30일 끝난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있다.

여기다 작년에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한층 자신감이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초크 라인'이라는 별명처럼 곧게 뻗어나가는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신지애는 개미허리처럼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러프로 무장한 미션힐스 골프장의 매력에 빠져 있다.

30일 J골프 피닉스 대회가 끝나자마자 대회장소로 출발한 신지애는 "수영은 못하지만 18번홀 연못에뛰어들겠다"며 나비스코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우리도 있다"=신지애 못지 않게 지은희, 김인경, 최나연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지은희는 그린 적중률에서 카리 웹(호주)과 함께 공동 3위(77.8%)에 올라 있고 페어웨이 안착률도 3위(84.7%)에 이름을 올렸다.

다섯차례 대회에서 세차례나 톱10에 든 지은희가 퍼트의 정확도만 높인다면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김인경과 최나연과 함께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1,LG)도 그린적중률과 평균 퍼트수 등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걸만하다. /연합뉴스

KPGA 개막전

KEB 인비테이셔널

내일 中서 열려

한국프로골프 2009 코리안투어 개막전인 한중투어 KEB 인비테이셔널 1차대회(총상금 8천만원)가 4월2일 중국 광저우 퉁관힐뷰골프장(파72.7천19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스포츠 및 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해 창설됐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나라를 오가며 한 차례씩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2008년 상금 랭킹 상위 60명과 코리안투어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10명, 추천 선수 2명 등 72명이 나서고 중국은 오메가차이나투어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국가대표 7명 등 64명이 출전한다.

2008년 KEB 인비테이셔널 1,2차 대회 챔피언인 배상문(23)과 김대섭(28·삼화저축은행)을 비롯해 강경남(26·삼화저축은행), 강성훈(22·신한은행) 등 상위 랭커들이 개막전 참가 신청을 마쳤고 중국에서도 지난해 상금왕 량오구이밍(32), 간판스타 장련웨이(44·상금 2위), 상금 3위인 저우쥔(26) 등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최경주 "반전기회 잡는다"

2일 셸휴스턴오픈 출전

'탱크'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셸휴스턴오픈에서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를 앞두고 감각 조율에 나선다.

2일(이하 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텍사스주 험블의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리는 셸휴스턴오픈은 마스터스 바로 전 주에 열리는 대회로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에서 이번 대회에 빠지는 선수는 타이거 우즈(1위), 케니 페리(9위,이상 미국) 뿐이다.

메이저대회 바로 전 주에 열리는 대회는 주로 중하위권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코스는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과 비슷해 '실전 연습'용으로 안성맞춤이라 상위권 선수들도 대부분 출전한다.

최근 월드골프챔피언십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회전 탈락, CA챔피언십 공동 59위,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컷 탈락 등 내리막을 거듭해온 최경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 좋은 기회다. /연합뉴스

"내년 한국으로 본부 이전"

최중화 국제태권도연맹 회장

최중화(55) 씨가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내년 한국으로 본부를 옮긴다.

ITF를 창설한 고(故) 최홍희 장군의 아들 최중화 씨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끄는 ITF의 캐나다 본부와 영국 사무국을 2010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씨는 또 내년 ITF 세계선수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며, 세계태권도연맹(WTF)과 통합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프로 태권도 등 새로운 경기방식과 룰을 소개하고 발전시켜 일반인들이 정통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화랑체육관 오필승 1防 성공

한국프로복싱 미들급

한국프로복싱 미들급 챔피언 오필승(33·광주화랑체육관·사진)선수가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오필승 선수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 공설운동장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코리아챔피언십토너먼트 2009프로월드컵 다이나믹복싱 미들급(72kg) 경기에서 도전자 김병훈(부산 광명체육관)을 맞아 10라운드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3-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타이틀을 지켰다.

신장 178cm의 오필승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주무기인 라이트 훅과 보디를 적중시키며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쳤다. 이로써 작년 7월 타이틀을 획득한 오 선수는 이번 1차 방어 성공에 이어 오는 5월 중 2차 방어전을 가질 계획이다.

26세때 복싱을 시작한 '늦깍이 복서' 오필승 선수는 "비록 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훈련해서 반드시 동양챔피언과 세계챔피언이 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스포츠중계

1일 (수)

▲2009 연맹회장기 대학핸드볼대회 준결승(13 : 50·SBS스포츠)

▲제 63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준결승(15 : 20·KBS N SPORTS)

▲프로농구 준 플레이오프 〈전자랜드 : KCC〉(18 : 50·MBC ESPN)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 : 북한〉(19 : 30·KBS1·SBS스포츠·XPORTS)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층/총수	감정가	최저가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32	19/1	1억400만	7840만
	봉선동 금호타운	31	20/2	1억3500만	9450만
	진월동 대덕8차	25	18/1	5800만	4060만
	봉선동 라인하이츠	26	10/1	6400만	4480만
	봉선동 모아	22	10/2	5500만	3850만
	방림동 금월	22	5/3	4000만	3200만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48	15/13	2억7000만	1억8900만
	진월동 한국아델리움	37	22/20	2억4000만	1억9200만
서구	풍암동 모아	43	16/1	1억7000만	1억1900만
	금호동 일신	32	16/16	9700만	6800만
	쌍촌동 부건빌고을	31	19/16	1억3500만	9450만
	내방동 주공	18	18/12	6500만	4550만
	치평동 금호대우	24	20/18	8800만	6160만
	화정동 금호3차	49	15/14	1억7000만	1억1900만
	쌍촌동 모아제일	32	20/1	1억2000만	7680만
	화정동 럭키염주	27	10/1	6000만	4200만
	금호동 중원펠리스	34	19/15	1억5500만	1억800만
	풍암동 SK뷰	66	15/5	4억5000만	3억1500만
	금호동 대주파크빌	25	21/12	9600만	6720만
	금호동 한국	27	8/7	8500만	5950만
북구	운암동 미라보	33	20/11	9000만	6300만
	일곡동 쌍용	37	19/4	1억4000만	9800만
	연제동 대주2차	31	15/3	1억8200만	1억2700만
	연제동 현대	61	20/6	1억5500만	1억800만
	문흥동 대주	31	11/7	8500만	5950만
	문흥동 대주2차	24	15/8	5200만	3640만
	두암동 현대아파트	57	18/4	2억1000만	1억4700만
	일곡동 벽산	31	21/2	1억1500만	8000만
	동림동 푸른3단지	24	20/19	7000만	4900만
	우산동 현대	55	15/9	1억6000만	8960만
	운암동 삼호	32	15/14	8000만	5600만
	용봉동 아이파크	57	22/3	3억2000만	1억7900만
광산	운남동 주공5단지	32	20/16	9500만	6650만
	월곡동 금호타운	27	15/4	7500만	5250만
	월곡동 금호타운	31	15/11	9000만	6300만
	송정동 은세계아이	33	15/7	1억3200만	9200만
동구	학동 현대1차	59	15/9	2억7000만	2억1600만

주택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	입면 제월리(군촌마을)	106/35	6250만	3200만	농가주택
	목사동면 (면사무소부근)	126/66	1억3700만	6150만	2층별장주택
영광	영광읍 (중앙초교 옆)	100/25	6900만	3860만	단층주택
	영광읍 신하리(택지지구)	59/30	7160만	5000만	단층주택
나주	봉황면 철천리	108/24	2800만	1240만	농가주택
화순	도곡면 월곡리	62/20	1600만	1100만	농가주택
서구	화정동 (서석고부근)	39/39	9700만	4400만	2층주택
남구	백운동(벽산아파트부근)	42/23	1억200만	5700만	단층주택
	백운동(서광여중부근)	45/42	88만	4900만	2층주택
	월산동(농성초부근)	51/34	8400만	4700만	2층주택
	월산동(농성초부근)	39/52	1억4800만	6800만	2층주택
	양림동(방송국부근)	54/35	1억	4480만	단층주택
북구	신안동(신안교부근)	69/40	1억1900만	5300만	단층주택
	우산동(무등도서관)	48/42	1억300만	5700만	2층주택
	두암동(홈플러스부근)	43/49	9650만	5400만	2층주택
	용봉동(유활파크부근)	38/46	8780만	4900만	2층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북구	두암동(문화초교부근)	45/51	1억1900만	6650만	2층상가주택
	용봉동(전대후문 편의점지하)	32/119	6억1000만	4억5300만	피자전문
	신안동(KT부근)	80/97	3억8300만	1억7200만	3층상가
남구	백운동(벽산아파트상가)	38/46	1억2600만	4500만	아파트상가
	지석동(대촌중초부근)	151/213	5억500만	2억2600만	2층(약국/병원)
	월산동(한방병원부근)	124/37	10억8500만	4억8600만	5층(식당/목욕)
서구	내방동(주공단지입구)	165/336	12억5000만	8억7500만	5층(식당/찜방)
동구	계림동(구시청부근)	100/221	6억6300만	4억6400만	4층(상가원룸)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묘자리/투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북구	양산동 (양산지구주상권)	대지	152	4억9400만	3억4600만
	신용동 (GS자이부근)	논	158	1억3400만	9400만
광산구	동호동 (본촌마을부근)	임야	12000	1억2700만	5680만
영광	영광읍 (해룡고도로변)	대지	278	2억9500만	8500만
장성	남면 월정리	논	960	1억400만	7330만
	남면 분향리	밭	1112	1억6600만	1억1700만
	삼서면 석마리	논	633	2900만	2000만
나주	반남면 성계리	논	617	2300만	1600만
	왕곡면 옥곡리	논	875	3200만	2230만
	왕곡면 행전리	논	1091	4000만	2780만
	다시면 가운리(관리지역)	논	1756	1억5600만	1억900만
	봉황면 장성리	밭	252	1600만	1100만
	세지면 대산리	논	1186	4310만	3000만
화순	한천면 정리	임야	6720	2200만	990만
	남면 내리	논	820	3500만	2500만
	춘양면 확송리	논	408	1200만	680만

숙박시설 (운영수익최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부근)	128/314	4	7억2000만	3억2200만
	중흥동 (광구역 부근)	120/403	6	13억	7억2700만
화순	북면(금호리조트부근)	1092/898	6	17억4500만	4억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별량초교근)	528/360	4	7억2300만	1억2100만

공장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정가	최저가
무안	일로읍(일로농공단지)	1157/718	2	6억4100만	3억5900만
	삼향면(죽림저수지부근)	1619/785	단층	9억6100만	4억4000만
광양	광양읍 세풍리	1620/357	2	13억	4억67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RED&SPICY
동구 충장3가 41-1
즉석철판떡볶이,야채철판볶음밥
수제돈까스,스파게티,생과일케이크
☎(062)224-1073

The나은클리닉
북구 운암동 금호APT 맞은편 신한은행 4층
통증,키성장,노화방지,비만,심혈관질환클리닉
물리치료실 운영
☎(062)521-2300~1

굽는치킨
광산구 도산동 서초등학교옆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굽는 치킨
대표 김 영 필
☎(062)942-9279

동남익스프레스
북구 두암동 두암초등학교 후문 앞
일반이사,포장이사,사다리차,피아노운반,각종차량보유
대표 심 쌍 호
☎(062)262-8000

옛날식화석구이삼겹살
광산구 도산동 파리바게트 옆
화석구이삼겹살 단체손님 환영
대표 고 귀 님
☎062)941-3179

금산화물알선사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 8,9번 도로중간
시내 및 전국 각지행 화물 및 외지차 전국알선전문
대표 류 방 원
☎(062)954-5678